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공동 보도자료〉

배포일 : 2024.12.12.(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02-784-1534

### 경찰, 군 부대의 국회 출입은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은 막았다

- 포고령 선포 이후 국회 전면 통제했지만 00시 34분 군 부대의 국회 진입은 허용
-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된 후 01시 46분에 군 부대 진입 허용해
-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 “경찰의 내란 혐의 구체적으로 드러나,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했다.

〈3일 23:37:41,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

4일 00시 34분경 서울경찰청은 재차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하며 군 병력의 경우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4일 00:34:52,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서울청 경비상황실에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금일 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지시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 군 병력 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세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30분이 지난 후에도 군 부대의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01시 41분경 수방사 병력이 철수했다가 다시 진입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01시 46분 5분만에 이를 허가했다.

<4일 01:41:52, 국회경비부대장,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데, 다시 들어가는거는 허가를 해줘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안전계장.>

(중략)

<4일 01:46:31,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 영등포서 경비과장 잠깐 전 지시사항 수신했는지.>

당시 국회 3문 쪽에선 A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경찰은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모든 출입문에 버스 차벽 설치를 지시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행정 차량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22::50:38,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27, 34, 45, 71, 87기동대장. 아울러 현시간 각 문에 경력 배치뿐만 아니라 문앞에는 경찰버스로 차벽 설치하세요.>

<3일 22::53:02,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네. 지시하고 있는 5개 기동대 경찰버스로 각 출입문 차벽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차벽만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행정차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 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

을 때 군 병력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며 “이는 명백한 내란 공조 행위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